

독일어 명사합성어와 영어 대응표현에 대한 연구

- 개념의미망 이론의 틀안에서¹⁾

이지영/이민행(연세대)

1. 서론

독일어의 명사합성어는 [X+N]NC형태의 합성어로서 그 명사합성어의 의미는 그 구성성분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Blumenvase, Fensterbank의 의미는 합성어를 이루고 있는 구성성분들의 의미와 그 의미들의 결합에 의해 생성된다. 즉, Blumenvase는 ‘꽃을 담는 병’을 뜻하는 /꽃 병/을 나타내고, Fensterbank는 ‘창가에 있는 의자’로 의자의 종류를 나타내는 합성어이다. 이처럼 합성어의 내용은 각 구성성분의 내용의 합과 아주 또는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모든 합성어가 그 구성성분들의 의미의 합이 합성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초기의 조어의 의미연구는 통사론과 독립적으로 연구되었으나 생성문법이 조어연구에 도입되어 조어를 축소된 통사적 구조로 간주하면서 조어의 통사적 심층구조를 기본으로 조어를 변형의 한 형태로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60년대에 들어서 Lees(1960)를 필두로 형태론에 통사론을 적용시켜 합성어의 의미분석을 시도하였으나 통사론만으로는 합성어의 의미를 분명히 밝힐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방법으로서 의미론적 접근방법이 제시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형태, 통사론적 분석으로는 이들 구성의 의미에 대한 원리적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미론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명사합성어에는 구성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관계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런 이유로 구성성분사이의 형태 통사론적 관계설정이 어렵다. 이 때문에 형태 통사론적 관계를 통해 각 구성 성분의 의미론적 역할을 규정하는 방법과 구별되는 의미론적 설명방법이 필요하다.

1) 이 논문은 1999년 11월 20일 한국언어정보학회 연구발표회에서 구두로 발표된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Rahmstorf(1983)의 명사구의 의미해석에 관한 연구 성과를 독일어의 명사합성어 중 한정합성어의 의미분석에 활용한다. 곧 명사합성어의 의미를, 그것의 구성성분들의 개념과 그 개념들간의 의미적 연관성을 먼저 살펴 그 결과에 의거하여 합성어의 의미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독일어의 명사합성어에 있어서 그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성분들간의 의미적 관계를 구분하고 그 관계에 따라 영어로 번역시 어떠한 규칙성이 있는지를, 즉 개념적 의미가 번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2. 개념의미망적 모형

Rahmstorf(1983)는 변형문법의 전통에 서있는 많은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어휘에 중점을 두지 않고 생성의미론자들처럼 어휘이전의 어떤 추상적 형태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명사구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들간의 의미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는 의사소통시스템을 확장시키고, 어휘적 의미대신 ‘개념’(Begriff)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도입하였다. 즉, 명사구의 각 구성성분을 각각의 어휘적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으로 간주한다. 이 개념들로 이루어진 개념망(Begriffnetz)을 통해 명사구의 구성성분간의 의미관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명사구를 분류하였다. 즉 그는 명사구의 구성성분을 각각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그 개념들은 서로 관계사(Relator)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명사구의 의미는 이러한 관계사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2.1. 개념, 개념의미망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이래 일찍이 철학과 논리학에서 주로 탐구되어 왔으며 언어학에서는 소쉬르에 이르러서 비로소 새로운 관심영역으로 대두되었다.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하는 것은 단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념의 정의를 논리학이나 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쉬르는 언어를 종래처럼 형식면보다 정신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파악하였으며 그

를 필두로 Sapir나 Ogden 및 Richard도 의미를 정신적인 단위로 보기 시작했다. Anshen은 단어를 사상("thought")이라고 보았으며 Katz는 개념을 의미("meaning")와 동일시하여 의미표지("semantic marker")를 개념의 표시로 보았다. 이외에도 Peterson은 개념을 언어와 관련시켜 개념이 구조적임을 이야기하고 Palmer는 개념은 단어의 의미 그 자체임을 설명하였다.

심리학적 입장에서 Corsini는 개념이란 개개인의 정신적 구성물들뿐만 아니라, 동일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회적 집단인들이 받아들인 단어들 및 기타의 기호들("symbols")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Wittgenstein은 실제 하나의 단어는 의미가 없으며,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없는 것이며, 단어의 의미는 개념 즉 추상관념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면 <나무>라는 개념은 실세계의 어떤 대상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류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이다. 즉 동일한 속성을 가진 모든 식물로부터 추출되어진 일반화된 하나의 관념이 <나무>의 개념이다. 이때에 식물들간의 서로 상이한 특성은 <나무> 개념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공통속성만이 선택되어지고 그들 각각의 고유한 속성은 배제된다. 그러므로 <나무>라는 개념은 많은 종류의 나무들을 외연적으로 지시하면서, 동시에 나무들이 갖는 많은 속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지시의미론의 전통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Rahmstorf는 개념들이 개념의미망 속에서 서로 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이러한 개념의미망을 교점과 가지로 구성된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내었다. 교점은 개념으로서 개별개념(Individualbegriff)이나 일반개념(Allgemeinbegriff)을 나타내고 이 교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교점을 개념의미망의 다른 교점과 연결시키는 가지를 통해 규정된다. 이러한 가지는 개념들간의 관계(Relation)를 표상하며 이러한 관계는 개념의 의미를 뜻한다.²⁾ 즉 개념이라는 기본단위는 다른 개념들과 연결시켜주는 관계 즉 가지를 통해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2) 이러한 각 가지는 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풀어쓰기의 방법을 사용한다.

2.2. 관계사(Relatoren)

개념은 비-관계적 구조요소이므로 개념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화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관계사(Relator)가 도입되었다. 관계사는 개념과 결합하여 관계들을 생성하는 기능을 갖는다. 관계들은 의미적 영역의 구성부분이고 개념의미망을 형성한다. 이 관계를 명시적으로 언어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문장이고 이 문장은 통사 언어층위에 해당된다.³⁾

개념은 항상 새롭게 생성되어 무한한 양을 이루므로 개념목록(Begriffinventar)을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개념들을 연결시켜주는 관계들을 한정적으로 제한하여 그것들의 목록을 작성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Rahmstorf가 제시한 독일어의 명사구를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사들의 목록은 다음의 (1)과 같다.

(1)	Realtion	Argument x	Argument y
ADV ¹⁾ (Adversativrelation)	대조관계	대조주어	대조대상
AGN(Agensrelation)	행위자관계	행위	행위자
BEN(Benefaktivrelation)	수익성관계	규정사물	수익자
CAU(Kausalrelation)	인과관계	원인	효과
CMP(Komparativrelation)	비교관계	비교성분	비교기반
COD(Konditionalrelation)	조건관계	조건상태	조건
COM(Kominativrelation)	수반격관계	수반격기본집합	보충집합
COS(Konsequenzrelation)	연속관계	이유	결과
COZ(Konzessivrelation)	용인관계	용인기준	제한
CRI(Kriteriumsrelation)	기준관계	표준기반	기준
DES(Destinativrelation)	목표관계	목표체	목표
DIR(Direktionalrelation)	방향관계	방향목적어	방향
DUR(Durativrelation)	지속성관계	지속기반	기간
EFF(Effizierungsrelation)	효과관계	효과기반	효과결과
ELM(Elementrelation)	요소관계	요소기저집합	요소
EXC(Exklusionsrelation)	배제관계	배제기저집합	배제된 집합
FIN(Finalrelation)	목적관계	목적	궁극적 대상

3) 이러한 문장이 풀어쓰기(Paraphrasen)에 해당된다.

(1)	Realtion	Argument x	Argument y
FUN(Funktionalrelation)	기능관계	기능의 대상	기능
IDT(Identitätsrelation)	동일성 관계	동일성 주체	동일성 대상
INC(Inklusionsrelation)	포함 관계	상위개념	하위개념
INS(Instrumentrelation)	도구 관계	도구	도구행위
LOC(Lokalrelation)	장소 관계	장소대상	장소
MAT(Materialrelation)	재료 관계	재료	재료대상
MES(Mensurativrelation)	측정 관계	측정집합	척도
MOD(Modalrelation)	양상 관계	양상대상	양상성대상
NOM(Nominalrelation)	명사 관계	이름	이름의 소유자
OBJ(Objektrelation)	대상 관계	대상행위	대상
OBL(Obligatorischrelation)	필수성 관계	의무행위	의무대상
ORI(Originativrelation)	기원 관계	기원대상	근원
PAR(Partitivrelation)	부분 관계	부분기본집합	부분집합
PER(Permutativrelation)	치환 관계	교환대상	교환물
POS(Posessivrelation)	소유 관계	소유	소유자
PRD(Produzentrelation)	생산 관계	생산체	생산품
PTH(Wegrelation)	길 관계	움직임	길
SUB(Substitutivrelation)	대체 관계	대체물	대체할 대상
TEM(Temporalrelation)	시간 관계	시제결과	시간
THB(Teilhaberrelation)	할당 관계	특성소유자	특성
THE(Themarelation)	주제 관계	주제	주제소유자

또한 그는 새로운 관계가 설정된다거나 이 목록에 적합치 않은 표현이 있다면 이 목록은 수정되거나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관계사를 사용한 분석방법을 통해서 통사구조는 같을지라도 그들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설명될 수 있다. 명사 표현체를 예로 들면, Produktion der Kraftwagen(자동차의 생산)과 Produktion der Landwirtschaft(농업의 생산)의 경우 이 두 명사 표현체는 동일한 통사구조를 갖지만 구성성분들간의 관계는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 Produktion der Kraftwagen의 경우에는 Kraftwagen이 Produktion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반면, Produktion der Landwirtschaft의 경우에는 주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즉 두 명사구의 의미표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 a. Rel(Kraftwagen, Produktion der Kraftwagen) OBJ-Relation
- b. Rel(Landwirtschaft, Produktion der Landwirtschaft) AGN-Relation

또한 관계들은 풀어쓰기, 관계자질, 논항의 선택제약에 의해 구별된다. 예를 들면 관계 ELM과 관계 PAR는 관계자질에 의해 구분 가능하다. ELM는 RÄUMLICH의 자질을 갖지 않는 반면, PAR는 그 자질을 취한다. 이처럼 모든 관계들은 세 영역 중 적어도 하나가 다르고 그에 따라 서로 구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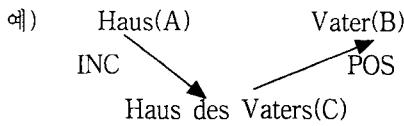
2.3. 명사합성어의 분석

독일어의 조어는 일반적으로 매우 생산적이며 이런 조어 중 명사 합성어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명사합성어는 예전에는 물론 지금도 활발히 생성되고 있다. 조어의 형성은 비교적 자유롭기는 하지만 제약이 뒤따른다. 상용하는 의미의 어휘존재여부, 형태론적 제약, 수용가능여부에 따라 조어의 생성이 결정된다. 또한 적형의 조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조어가 관용어화가 일어난 조어인지 아닌지 그 관용어화 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만약 관용어화가 된 조어라면 어휘목록에 기재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어가 관용어적이지 않을 경우에만 연구 대상에 포함시켜 형태소나 어휘로 분해하여 그것을 통사규칙으로 그 수형도를 작성한다. 통사적 분석 후 의미표상을 형성할 때 개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들어있는지를 명시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앞장에서 제안한 관계사들에 의해 명사합성어를 분류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과 그 개념들간의 관계를 먼저 조사해 보아야 한다. 이처럼 개념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3) 개념관계(Begriffsbeziehungen)의 조건(Rahmstorf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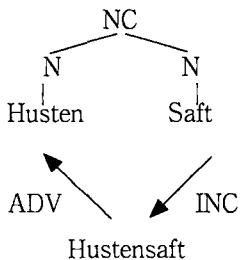
1. 개념 A와 B가 명사적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개념 C를 형성한다면 C는 항상 A나 B의 하위개념이다.
만약 A가 핵일 경우 INC(A, C)로 표현된다.
2. A와 B로 구성된 개념 C와 핵명사가 아닌 B와의 관계는 관계목록 중 하나의 관계일 수 있다.
3. A와 B의 관계는 더 이상 규정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위의 조건에 따라 명사합성어 Hustensaft의 개념관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4) 합성어 Hustensaft(기침 물약)

a. 수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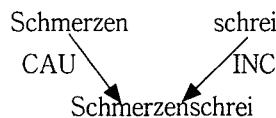
b. 의미 표상

ADV(Hustensaft, Husten) & INC(Saft, Hustensaft)

또한 일반적으로 한정합성어의 내적 의미구조는 수식원리(Modifikationsprinzip)에 의해 규정된다. 두 번째 N은 수식된 개념 즉, 괜한정어이며, 첫 번째 N은 두 번째 N을 수식하는 한정어를 나타낸다. 따라서 두 번째 N은 합성

어의 상위개념이다. 예를 들어 Schmerzenschrei(고통의 절규, 신음)를 살펴 보면 그 의미표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5) CAU(Schmerzen,Schmerzenschrei)&INC(Schrei,Schmerzenschrei)



Rahmstorf는 위 (1)에서 제시된 모든 관계사가 명사합성어의 의미분석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23개의 관계사들이 사용된다고 보았다.

(6) 명사합성어의 의미분석에 필요한 관계사와 그 예들

대조관계	Hustensaft(기침물약), Drogenprogramm(마약프로그램) . . .
수익성관계	Gästezimmer(객실), Krankenhaus(병원) . . .
인과관계	Explosionswelle(폭발파), Schmutzflecke(더러운 얼룩) . . .
연속관계	Trauerfeier(장례식), Gedenkfeier(추모제) . . .
기준관계	Schnittmuster(본), Lohnsteuer(소득세) . . .
목표관계	Gartentür(정원문), Bergsteigen(등반) . . .
지속성관계	Fünftagregen(5일간의 비) . . .
효과관계	Bauwerk(건축물), Strickjacke(니트) . . .
요소관계	Elternbeirat(학부모대표), Abfallhaufen(쓰레기더미) . . .
목적관계	Beschwerdebuch(불평신고부), Bettelbrief(구걸편지) . . .
동일성관계	Eichbaum(너도밤나무), Ehepaar(부부) . . .
포함관계	Alleinbesitz(독점), Allgemeinbegriff(일반개념) . . .
도구관계	Baustein(건축용석재), Lebensmittel(식품) . . .
장소관계	Gartengewäsche(원예식물), Briefkasten(우편함) . . .
재료관계	Steinmauer(돌담), Apfelsaft(사과즙) . . .
대상관계	Meinungsaustausch(의견교환), Bärenjagd(곰사냥) . . .
기원관계	Körpergeruch(체취) . . .

부분관계	Apfelkern(사과씨), Fruchtfleisch(과육) . . .
치환관계	Hotelgebühren(숙박료), Heizungskosten(난방비) . . .
소유관계	Ansichtskarte(그림엽서), Nationalgalerie(국립미술관) . . .
생산관계	Glasfabrik(유리공장), Honigbiene(꿀벌) . . .
시간관계	Abendandach(저녁기도), Sommerferien(여름방학) . . .
주제관계	Baukunst(건축예술), Arzneilehre(약학) . . .

3. 자료분석과 규칙

분석의 자료가 되는 독일어와 영어는 Mailing list 'German News'와 'de-news'⁴⁾과 독-영사전 그리고 그 외의 텍스트에서 선별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 개 이상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진 독일어 명사합성어는 아주 작은 양을 차지할 뿐 대부분의 명사합성어는 두 개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⁵⁾ 그러므로 두 개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진 1000개의 독일어 명사합성어를 관계사를 통해 분류하고 그것들이 영어로 번역될 때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를 고찰하여 그 규칙성을 밝혀보자 한다.

먼저 독일어 명사합성어를 위해서는 그 구성성분들의 통사범주를 사용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구성성분의 어근이 각각 명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명사합성어의 경우에는 [NN1 NN2]로 나타내고 형용사와 명사간의 결합은 [Nad1 NN2]로 표시한다. 또한 구성성분이 명사일지라도 그것이 동사에서 파생된 경우 Nv, 형용사에서 파생된 명사일 경우에는 Nad로 표기한다.

(7) 독일어의 범주

명사	NN
동사, 또는 그 파생명사	Nv

4) 독일의 시사주간지 "Spiegel"을 영어로 번역한 것으로 인터넷에서 구한 자료이다.

5) Müller(1977)의 연구에 의하면 독일어의 명사합성어는 약 93.8%가 두 개의 구성 성분의 결합이고 약 6%만이 세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며 0.2%만이 네 개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형용사 또는 그 파생명사	Nad
형용사비교급	AdR
형용사최상급	AdS

그리고 독일어의 합성명사가 영어로 번역될 때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영어의 통사범주들을 사용한다.

(8) 영어의 통사 범주(이민행 · 이기황 1996)⁶⁾

관사	DT
전치사	IN
형용사	JJ
형용사비교급	JJR
형용사 최상급	JJS
단수명사나 물질명사	NN
복수명사	NNS
명사합성어	NC
소유격 어미	POS
부사	RB
부정사표지	TO
동사기본형	VB
동명사나 현재분사	VBG
과거분사	VBN

여기에서 명사를 다시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합성어에서는 그들간의 순서가 고려되어져야 하고 또한 명사합성어는 단일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독일어는 물론 영어에서도 NN1, NN2처럼 그 순서를 명사에 매겨 주고 명사합성어에 대해서는 NN이 아니라 NC라는 별도의 기호를 첨부하였

6) 이민행 · 이기황(1996)에서 제시된 영어의 통사범주 중 분석에 요구되는 범주만을 인용하고, 이외에 명사합성어를 표시하기 위해 범주 NC를 첨가시켰다.

다. 명사합성어의 구성성분간의 개념관계를 살펴보면 관계사 INC는 모든 명사합성어에 적용되므로 의미표상을 위해 사용되는 두 관계사 중 INC는 고려하지 않고 그 관계사외의 다른 관계사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그러나 만약 의미적 표상을 나타내주는 두 관계사가 모두 INC인 경우에만 포함관계사류(INC)에 포함시키겠다.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1,000개의 독일어 합성명사를 관계사에 따라 분석한 결과, 210가지의 영어 번역유형이 나타났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독일어 명사합성어의 구성성분들을 결합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관계사들은 각각 그 빈도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들 중 가장 빈번히 사용된 관계사들은 다음의 (9)와 같다.

(9) 관계사에 의한 독일어 명사합성어분류⁷⁾

THE	16.1%	Steuerpolitik(세금정책), Geschichtsunterricht(역사수업)
LOC	14.3%	Bergarbeiter(광산업), Breifkasten(우편함)
OBJ	11.6%	Lieblingsmaler(좋아하는 화가), Arbeitgeber(고용주)
FIN	11.4%	Rauschgift(마약), Absagebrief(취소편지)
TEM	5.8%	Besuchstag(면회일), Sommerferien(여름방학)
INS	5.7%	Bahntransport(철도운송), Ballspiel(구기)
IDT	4.9%	Eichbaum(너도밤나무), Samenkorn(씨앗)
MAT	4.3%	Steinmauer(돌담), Holzkisten(나무상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된 관계사들이 명사합성어의 의미분석에 자주 활용되는 반면 지속성관계사(DUR)나 목표관계사(DES)들은 명사합성어의 분석에 아주 드물게 사용된다. 독일어 명사합성어를 관계사에 따라 분류하고 그 분류된 것들이 영어로 번역될 때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 먼저 영어로의 번역유형을 살펴보자. 독일어 명사합성어는 영어로 번역될 때 210가지의 번역 유형이 나타난다. 그 번역 유형 중 가장 빈번히 나타나

7) 1,000개의 독일어 명사합성어 중 40개 이상 즉 4.0%이상 나타난 관계사 들만을 예로 들어 제시하였다.

는 유형을 독일어 명사합성어의 관계사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0) 관계사에 따른 영어 번역유형

a. 주제관계 (161개); 16가지의 번역유형

영어 NN1 NN2 형 (51개) Englischkurs - English course

영어 NN2 IN NN1 형 (35개) Anstandsregeln - rules of deportment

영어 NN 형 (23개) Landkarte - map

영어 JJ1 NN2 형 (20개) Bautechnik - constructional engineering

영어 VBG1 NN2 형 (14개) Bergfach - mining profession

b. 장소관계 (143개); 16가지의 번역유형

영어 NN1 NN2 형 (41개) Schulprüfung - school examination

영어 NN(S) 형 (27개) Begräbnisplatz - cemetery

영어 NC 형 (20개) Arbeitplatz - workplace

영어 NN1-NN2 형 (11개) Bergbewohner - mountain-dweller

영어 NN1 IN NN2 형 (10개) Abladeplatz - port of discharge

영어 JJ1 NN2 형 (9개) Ahnensaal - ancestral hall

c. 대상관계 (116개); 18가지의 번역유형

영어 NN2 IN (DT) NN 형 (30개) Beinbruch - fracture of the leg

영어 NN1 NN2 형 (26개) Schnittblumen - cut flowers

영어 NN 형 (18개) Arbeitsnehmer - employee

영어 NN1-NN2 형 (11개) Geldtransport - money-transporter

영어 JJ1 NN2 형 (10개) Kostenentlassung - financial relief

d. 목적관계 (114개); 18가지의 번역유형

영어 NN 형 (27개) Rauschgift - heroin

영어 NN1 NN2 형 (24개) Haftbefahl - arrest warrant

영어 VBG1 NN2 형 (17개) Abgangsprüfung - leaving examination

영어 NN2 IN NN(S)1 형 (11개) Achtungsbezeugung - mark of respect

e. 시간관계 (58개); 13가지의 번역유형

영어 NN1 NN(S)2 형 (18개) Nachtflug - night flight

영어 JJ1 NN2 형 (11개) Schlußplädoyer - final statement

영어 NN2 IN (DT) NN1 형 (7개) Abfahrtzeit - time of departure

영어 VBG1 NN2 형 (7개) Besuchstag - visiting day

영어 VBG2 IN (DT) NN1 형 (6개) Nachtarbeit - working during the night

f. 도구관계 (57개); 14가지의 번역유형

영어 NN(S) 형 (15개) Schreibtisch - desk

영어 NN1-NN2 형 (14개) Anrichtetisch - kitchen-table

영어 NN1 NN2 형 (10개) Zugverkehr - railroad traffic

영어 JJ1 NN2 형 (9개) Baustahl - structural steel

g. 동일성관계 (49개); 9가지의 번역유형

영어 NN 형 (29개) Bargeld - cash

영어 NN1 NN2 형 (5개) Aufbauarbeit - construction work

영어 JJ1 NN2 형 (5개) Achselland - arable land

h. 재료관계 (43개); 7가지의 번역유형

영어 NN1 NN2 형 (31개) Steinmauer - stone wall

영어 JJ1 NN2 형 (4개) Asbestplatte - asbestos mat

i. 치환관계 (40개); 12가지의 번역유형

영어 NN1 NN(S)2 형 (13개) Hotelsgebühren - hotel charges

영어 NN 형 (6개) Benutzungsgebühr - fee

영어 JJ1 NN2 형 (5개) Antwortgesang - antiphonal chant

(10)에서 언급된 것처럼 재료관계사 부류가 가장 규칙적인 영어 번역유형을 갖고 있다. 43개의 재료관계사에 속하는 독일어 명사합성어 중 31개가 영어 NN1 NN2 형으로 번역된다. 또한 가장 자주 나타난 주제 관계 역시 규칙적이다. 주제관계사 부류의 번역유형을 살펴보면, 주제관계를 갖는 독일어의 명사합성어는 영어에서 NN1 NN2형으로 번역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관계사들이 주제관계와 같이 규칙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상관계 또한 자주 나타나지만 표현형에 따라 영어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Nx Ny)의 관계는 잘 나타나지 않고 영어형은 주로 JJ1

NN2의 형을 따르는 반면 (Ny N)x는 자주 나타나며 주로 NN2 IN NN1, 또는 NN1 NN2의 영어형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표현형을 고려하지 않고 관계사에 의해서만 분석을 해보면 NN2 IN (DT) NN1의 영어번역형이 가장 빈번히 나타나고 NN1 NN2의 영어형도 또한 자주 나타난다.

이상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관계사들의 독일어 명사합성어가 어떠한 영어형으로 번역되는지를 자주 나타나는 영어형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영어로의 번역시 각 관계사마다 자주 나타나는 특정한 영어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독일어 명사합성어의 구성성분의 통사구조에 따라 영어로의 번역유형을 살펴본 것과 관계사에 따른 영어번역유형 중 어느 것이 더 규칙적 인지를 알아보자. 두 개의 구성성분으로 되어있는 독일어 명사합성어의 구성성분들이 명사와 명사의 결합인지, 동사의 어간과 명사와의 결합인지 등을 살펴본 결과 122개의 영어번역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1) 독일어 명사합성어의 통사적 결합에 따른 영어번역유형
- a. 독일어 Nv1 NN2 형(1,000개 중 285개); 29가지의 번역유형
- 영어 NN(S) 형(60개) Auffahrungsfall - accident
영어 NN1 NN(S)2 형(53개) Besoldungsgruppe - salary grade
영어 VBG1 NN2 형(42개) Betreibengesellschaft -
managing company
영어 NN2 IN NN1 형(37개) Abstrahlungswinkel -
angle of reflection
영어 JJ1 NN2 형(32개) Aufbauprinzip -
structural principle
영어 NC 형(14개) Schlagzeile - headlines
- b. 독일어 NN1 NN2 형(100개 중 283개); 25가지의 번역유형
- 영어 NN1 NN2 형(120개) Weihnachtskarte -
Christmas card
영어 NN 형(54개) Todesfall - death

- 영어 JJ1 NN2 형(21개) Währungsunion - monetary union
영어 NC 형(21개) Harrbrüste - hairbrush
- c. 독일어 NN1 Nv2 형(1,000개 중 231개); 28가지의 번역유형
영어 NN1 NN(S)2 형(63개) Steuereinnahme - tax income
영어 NN 형(36개) Brandstifung - arson
영어 NN2 IN NN1 형(27개) Augenmaß - judgement by eye
영어 JJ1 NN2 형(24개) Ortsgespäche - local calls
영어 NN1-NN2 형(16개) Finanzberater - tax-consultants
- d. 독일어 Nv1 Nv2 형(1,000개 중 140개); 16가지의 번역유형
영어 NN1 NN(S)2 형(37개) Abbrucharbeit - demolition
영어 NN2 IN NN1 형(32개) Begnadungsgesuch -
petition for reprieve
영어 NN 형(24개) Änderungsantrag - amendment
영어 VBG1 NN(S) 형(17개) Abschiedsbesuch -
parting visit
영어 JJ1 NN2 형(15개) Bewegungsspiel - athletic game
- e. 독일어 Nad1 Nv2 형(1,000개 중 25개); 9가지의 번역유형
영어 JJ1 NN2 형(10개) Eigenbedarf - private use
영어 NN 형(6개) Alleinsein - loneliness
- f. 독일어 Nad1 NN2 형(1,000개 중 25개); 8가지의 번역유형
영어 JJ1 NN2 형(10개) Nationalgalerie - National gallery
영어 NN 형(6개) Krankenwagen - ambulance

위 (11)에서 제시된 것처럼 통사적 결합에 따른 영어로의 번역유형의 갯수는 122개인 반면 관계사에 따른 영어번역유형은 120개가 나타난다. 이처럼 두 분석 방법에 의한 각각의 영어번역유형은 거의 근사한 수치로 나타나지만 두 분석 방법 중 통사 구조에 따른 분석은 통사적 결합에 따른 영어번역유형에서 규칙성을 쉽게 찾지 못한다. 예를 들면 독일어 (NN1 NN2)NC, (NN1

$Nv2)NC$, $(Nv1\ NN2)NC$, $(Nv1\ Nv2)NC$ 의 구조는 그 번역유형이 각각 25개, 28개, 29개, 16개가 나타난다. 이들은 (11)에서 제시된 소수의 번역유형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단 한번만 나타난다. 그러므로 통사적 구조에 따른 영어번역형이 규칙성을 보인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관계사에 의한 의미구조와 통사구조를 함께 고려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다. 먼저 독일어 명사합성어를 관계사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다시 통사적 구조에 따라 세분화시켰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관계사 중 자주 사용되는 관계사들이 있으며 또한 관계사에 따른 독일어 명사합성어의 구성성분의 품사들도 그 사용의 빈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관계사와 통사적 구조에 따라 독일어에 대응되는 영어로의 번역유형을 살펴본 결과 영어번역유형은 355개가 나타났다. 그럼으로써 단지 통사구조만을 따른 분석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사적 구조 $(NN1\ NN2)NC$ 의 영어번역형은 25가지가 제시되어있지만 이러한 통사구조를 가진 명사합성어가 어떤 관계사에 의해 연결되어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영어번역유형에 대한 규칙성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먼저 대조관계사의 경우 1000개의 자료 중 7개가 이 관계사에 의해 연결되어있고 영어번역형은 4가지가 나타난다. 7개의 자료 중 $NN1\ NN2$ 와 같은 통사구조를 갖는 독일어는 5번 나타나고 이 중 4개의 독일어가 영어 $NN1\ NN2$ 형으로 번역된다. 또한 요소관계사에 의해 결합된 명사합성어들 중 $(NN1\ NN2)NC$ 구조는 4가지 번역형으로 나타나며 그 중 영어 $NN1\ NN2$ 형과 $NN2\ IN\ NN1$ 형으로 가장 많이 번역됨을 알 수 있다. 통사구조 $(NN1\ NN2)NC$ 는 동일성 관계사부류일 경우에도 3가지의 영어번역형으로 나타나는데 거의 영어 NN 형으로 번역된다. 마찬가지로 독일어 $(NN1\ Nv2)NC$ 구조도 관계사에 따라 분류한 후 통사적 구조에 따른 규칙성을 살펴보면 기원관계사류의 경우 6개의 독일어는 영어번역유형이 2가지가 나타나는데 4개가 영어 $NN1\ NN2$ 형에, 2개가 영어 $JJ1\ NN2$ 형에 해당된다.

(12) 관계사와 통사적 구조를 함께 적용한 영어번역유형

- a. 대조관계사 (7개); 4가지의 번역유형

[$NN1\ NN2$] (5개) → 영어 $NN1\ NN2$ 형(4개)

영어 RB-NN1 NN2 형(1개)

b. 요소관계 (26개); 9가지의 번역유형

[NN1 NN2] (10개) → 영어 NN1 NN2 형(5개)

영어 NN2 IN NN1 형(3개)

영어 NN 형(1개)

영어 NC 형(1개)

c. 동일성관계 (49개); 10가지의 번역유형

[NN1 NN2] (19개) → 영어 NN 형(14개)

영어 NN1 NN2 형(3개)

영어 JJ1 NN2 형(1개)

d. 장소관계사 (143개); 17가지의 번역유형

[NN1 NN2] (57개) → 영어 NN1 NN2 형(24개)

영어 NN 형(11개)

영어 NN1-NN2 형(9개)

영어 NC 형(7개)

e. 시간관계사(58개); 13가지의 번역유형

[NN1 NN2] (13개) → 영어 NN1 NN2 형(8개)

영어 NN2 IN NN1 형(1개)

영어 NC VBG 형(1개)

f. 기원관계사 (13개); 3가지의 번역유형

[NN1 Nv2] (6개) → 영어 NN1 NN2 형(4개)

영어 JJ1 NN2 형(2개)

독일어 명사합성어를 관계사와 통사적 구조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영어로의 번역유형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3)에 제시된 독일어 (Nad1 Nv2)NC의 영어 번역유형을 보자.

(13) 독일어 (Nad1 Nv2)NC의 통사구조와 포함관계사에 따른 규칙성

(a) 독일어 명사합성어의 통사적 구조에 따른 영어번역유형

67	Nad1 Nv2	JJ1 NN2	10
68		NN	6
69		NN1 NN2	3
70		NN2 IN (DT) JJ NN	1
71		DT NN2 IN VBN NNS	1
72		JJ1-NN2	1
73		JJ1 NN NN	1
74		JJ NN NN	1
75		VBN1 NN2	1

(b) 독일어 명사합성어의 관계사와 통사적 구조에 따른 영어번역유형
INC 관계사:

독일어 (Nad1 Nv2)NC → JJ1 NN2

(13a)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어 (Nad1 Nv2)NC는 25개가 나타나는데 통사적 구조만을 고려할 경우 영어번역유형은 9가지가 나타난다. 그러나 관계사를 분석에 함께 적용해보면 관계사 INC에 의해 결합되는 명사합성어 중 7개가 독일어 (Nad1 Nv2)NC의 통사구조에 해당되며 이것들은 영어로 번역될 때 모두 JJ1 NN2의 통사구조로 번역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독일어 (NN1 NN2)NC의 통사구조에 따른 영어번역유형은 25가지이며, 재료관계사에 의해 결합되어있는 독일어 명사합성어의 영어번역유형은 7가지이다. 독일어 (NN1 NN2)NC를 통사적 구조와 관계사를 함께 적용하여 분석하면 관계사에 해당되는 42개의 독일어가 6가지의 영어번역유형으로 나타나며 그 중 31개가 NN1 NN2의 번역유형에 해당된다. 두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사적 구조나 관계사 중 하나의 기준에 의한 분석보다는 두 기준을 모두 적용시켰을 경우에 영어로의 번역유형의 규칙성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지금까지 관계사와 통사구조를 함께 고려한 영어 번역유형을 살펴보고 그러한 분석방법의 장점을 살펴보았다. 이런 분석의 결과 독일어 명사합성어의 영어로의 번역형에 관한 규칙성의 가능성은 알 수 있다. 즉 단지 통사구조에 의한 분석이나 개념의미망에 근거를 둔 관계사에 의한 분석은

그 규칙성이 간단히 찾아지지는 않지만 그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면, 즉 각각의 관계사마다 그 부류에 속하는 자료들을 다시 통사적으로 구분한다면 다른 방법보다는 규칙적인 번역형을 찾아낼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념의미망은 독일어 명사합성어의 의미분석에 효율적이며 영어로의 번역시 그 규칙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번역의 규칙성은 번역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기계번역시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개념의미망은 중의성 또는 다의성을 가진 명사합성어의 의미해석과 번역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즉 다의적인 명사합성어는 형태상으로는 하나의 전체어휘로 나타나지만 개념의미망에서 그 명사합성어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합성어를 이루고 있는 각 개념과 전체개념이 어떠한 관계사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 뜻이 각각 해석된다. 그러므로 명사합성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의 수만큼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명사합성어의 번역시에도 그 명사합성어가 어느 관계사에 의해 결합되는지를 안다면 쉽게 번역이 가능하다. 이러한 명사합성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기계번역이나 정보검색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예를 들어 Steuerpolitik(세금정책)의 경우 이 명사합성어가 주제관계사에 의해 결합되어 있음을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지만 기계는 개념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자동화에 난점이 생긴다. 이러한 점에 있어 기계적 자동화가 어려워지므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4. 결론

이제까지 우리는 개념을 조어구성성분의 단위로 간주하여 독일어의 명사합성어를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곧 명사합성어를 단순히 어휘들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개념간의 관계를 통한 결합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개념이란 일종의 추상적인 단위로서 인간의 기억 속에 들어있는 어휘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 기호, 사물들의 총체로 볼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서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된 것이 인지심리학분야

에서 발전되어온 개념의미망이다. 명사합성어의 의미 또한 개념의미망 속에서 개념이 어떻게 연결 지워져 있는지에 따라 분석될 수 있다. 즉, 개념의미망을 통해 명사합성어의 의미와 그것의 개념적인 구조가 명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개념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방법으로 풀어쓰기가 사용되며 의미적 표상을 통해 명사합성어의 의미관계를 알 수 있다. 또한 의미적 해석규칙에 따라 의미표상과 통사적 수형도의 관계가 제시되고 이들간의 관계는 거울상 묘사(Spiegelbilddarstellungen)를 통해 형식화될 수 있다.

독일어의 명사합성어는 관계사를 통해 분류되며 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풀어쓰기, 관계자질, 논항의 선택자질 그리고 그 외의 형식적인 특성이 사용된다. 1,000개의 독일어 명사합성어를 개념의미망에 근거하여 분류한 결과 주제관계, 장소관계, 대상관계, 도구관계가 가장 빈번히 나타나며, 시간 관계는 드물게 나타나는 반면 지속성관계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계사를 통해 분류된 독일어 명사합성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 어떤 규칙성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분석의 자료가 되는 독일어와 영어는 인터넷 Mailing list 'German News'와 'de-news', 사전 그리고 그 외의 텍스트에서 선별하여 그 독일어 명사합성어의 대응영어표현을 살펴보았다. 관계사에 따른 분석의 결과, 합성어의 내부 개념구조마다 대응 영어표현이 일정한 어휘통사적 구조를 선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재료관계의 합성어들이 번역시 가장 규칙적인 번역유형으로 나타나며 대상관계, 주제 관계, 도구관계들도 또한 규칙적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념의미망은 독일어 명사합성어의 의미분석에 효율적이며 또한 명사합성어의 다의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고, 독일어 명사합성어를 영어로 번역시에 나타나는 통사적 대응관계에 대한 제약으로 삼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분석모형을 한국어 합성명사 분석이나 독한 번역에의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거나 영어와 독어의 개념의미망을 상호 비교하는 작업을 후속연구 주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독일어 합성명사를 개념의미망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번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보는 것도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다.⁸⁾

참 고 문 헌

- 이민행 · 이기황. 1996. 복합 명사구 번역에 관한 연구. 최종 연구보고서. 한국전자통신 연구소.
- Anshen, R. N. Ed. 1957. *Language: An Enquiry into Its Meaning and Function*. New York: Harper. & Row.
- Betteridge, Harold T. 1978. *Cassell's German Dictionary; German-English/English-Germa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Inc.
- Bußman, H. 1990. *Lexikon der Sprachwissenschaft*, Stuttgart: Kröner.
- Corsini, Raymond J. Ed. 1984. *Encyclopedia of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 Fleischer, W. 1982. *Wortbildung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Tübingen: Niemeyer. 오예옥 · 이성만 역. 1995. 현대독일어조어론. 서울: 한국문화사.
- Höhle, T. 1982. "Über Komposition und Derivation; Zur Konstituentenstruktur von Wortbildungsprodukten im Deutschen," *Zeitschrift für Sprachwissenschaft* 1. 76-112.
- Lees, R. 1960. *The Grammar of English Nominalization*. The Hague: Mounton.
- Levi, J. 1978. *The Syntax and Semantics of Complex Nominals*. New York: Academic Press.
- Motsch, Wolfgang. 1972. "Wieviel Syntax brauchen Komposita?", Berlin: Naumann, Bernd. *Wortbildung i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Tübingen: Niemeyer.
- Olsen, Susan. 1986. *Wortbildung im Deutschen. Eine Einführung in die Theorie der Wortstruktur*. Stuttgart: Kröner.

8) 익명의 논평자 한 분이 본 연구의 여러 가지 후속연구 가능성에 대해 의미있는 제안을 해주었다. 이에 대해 논평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Rahmstorf, Gerhard. 1983. *Die semantischen Relationen in nominalen Ausdrücken des Deutschen*.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zu Mainz.

Palmer, F. R. 1976. *Seman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üschel, Ulrich. 1975. *Semantische-Syntaktische Relationen: Untersuchungen zur Kompatibilität lexikalischen Einheiten im Deutschen*. Tübingen: Niemeyer.

Zusammenfassung

Die Untersuchung der deutschen Nominalkomposita und deren englische Entsprechungen - im Rahmen eines begriffssemantischen Ansatzes

Ji-Young Lee/Minhaeng Lee(Yonsei Univ.)

In der vorliegenden Abhandlung wird versucht, die syntaktischen und semantischen Relationen der Nominalkomposita im Deutschen zu untersuchen. Dabei wird der Schwerpunkt darauf gelegen, die Regularitäten der Übersetzungen der deutschen Komposita ins Englische herauszufinden.

Als den Analyserahmen wird der konzeptuelle Ansatz von Rahmstorf (1983) herangezogen. Die Theorie unterscheidet sich von der transformationellen Tradition und sich an der kognitionswissenschaftlichen Tradition verknüpft, basierend auf dem Konzept des "Begriffs". Den Untersuchungsgegenstand bilden 1,000 Nominalkomposita des Deutschen und deren englischen Übersetzungen. Die Ergebnisse der Untersuchung lassen sich folgendermaßen formulieren:

Erstens, es besteht keine erwähnenswerte Parallelität zwischen den

syntaktischen Strukturen der deutschen Komposita und denen der englischen Entsprechungen.

Zweitens, bestimmte semantische Relationen zwischen den Konstituenten der deutschen Komposita neigen dazu, bestimmte syntaktische Strukturen bei Übersetzungen ins Englische aufzuweisen.

Es bleibt jedoch offen, wie sich die semantischen Relationen der Komposita automatisch erkennen ließen, wenn die Forschungsergebnisse in ein Deutsch-Englisch maschinelles Übersetzungssystem eingesetzt würden.